

## 광주 '복합 쇼핑몰 3종' 교통 지옥 예방 국비 지원 시급

2028년 신세계·더현대 개점...광천사거리 일대 차량 두 배 이상 증가  
윤 대통령 공약 사업...상무역~터미널~광주역 지하철 예타 반영 과제

광주시가 윤석열 대통령의 호남 대표공약인 '더현대 광주', '신세계백화점(확장)', '스타필드 광주' 등 이른바 '복합쇼핑몰 3종'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 필수인 교통 대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교통지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휴일이면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하고 있는 광천사거리의 경우 오는 2028년 대형 복합 쇼핑몰 동시 개점 시 두 배 이상의 차량 유입이 발생하고, 스타필드 광주가 들어서는 어등산 주변 도로도 심각한 차량 정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교통대책으로 도시철도(지하철) 건설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데다 지금 당장 사업을 시작해도 이르면 2030년께나 완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쇼핑몰 개장 시기 조율과 함께 정부 지원에 따른 신속한 교통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의 '골재 도시 복합쇼핑몰 3종 세트' 사업 의지에 따라 '더현대 광주'는 오는 2028년 1월 1일 개점을 목표로 옛 전방·일신방직 내에 확보한 3만3000여㎡(1만평) 부지에 연면적 29만7000㎡(9만평) 규모로 들어선다.

광주시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더현대 광주'는 연면적 기준으로 국내 대표 핫플레이스인 여의도 '더현대 서울'의 1.5배에 이르고 친환경, 최첨단 기술, 예술, 엔터테인먼트, 로컬 등 5가지 문화 테마를 융합한 국내 첫 문화 복합몰로 지어진다. 더현대 광주와 함께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내에는 49층 특급호텔과 4000여세대 규모 아파트 등도 들어선다.

바로 옆 광주신세계도 2028년까지 현재보다 세 배 이상 발집을 키운 확장형 대형 백화점을 선보일 계획이다. 확장한 백화점에는 쇼핑시설을 비롯한 갤러리, 오픈형 대형 서점, 옥상 공원, 루프탑 레스토랑, 펍파크 등이 들어서고, 입점 브랜드도 현재 530여개에서 1000여 개로 늘어난다.

어등산 관광단지 내에 들어서는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도 2030년 완공을 공식화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 예정인 '스타필드 광주'는 하루 평균 이용객 8만 2000여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현대, 스타필드, 신세계백화점(확장) 등 이른바 '복합쇼핑몰 3종' 사업을 광주 도약의 지렛대로 삼아 연간 도시 이용인구 3000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복합쇼핑몰 입지 주변의 심각한 교통난이 사업 성공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

고 있다. 실제 광천사거리 주변에 들어서는 더현대 광주와 신세계가 광주시에 제출한 제안서 등을 분석한 결과, 오는 2028년 개장 시 인근 도로 하루 교통량은 현재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가장 악명 높은 혼잡도로 중 한 곳으로 꼽히는 광천사거리의 하루 교통량이 현재 12만대에서 24만대까지 급증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옆 옛 전방·일신방직, 그리고 기아랜드 피어스필드와 인접한 임동 오거리도 2021년 기준 하루평균 교통량이 전년 대비 11.76%(광주 주요 50개 교차로 중 교통량 증감률 3위)나 증가했을 정도로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는 대표 혼잡구간이라는 점이다.

교통전문가들은 광천사거리와 임동오거리 등이 연쇄적으로 막힌다면 광주 도심 도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도미노 교통난'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광주시는 일단 차량 분산 및 대중교통 이용 등을 목표로 상무역~시청~기아차~광천터미널(광주 신세계)-옛 전방·일신방직부지(더현대 광주)-KIA 챔피언스필드-광주역 7km구간을 도시철도(지하철)로 잇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예상 사업비는 6000억원 안팎으로, 국비 60%를 지원받고 나머지 40%는 복합쇼핑몰 사업자가 내놓는 공공기여금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선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예비타당성 반영 등 정부 승인·지원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 과정을 통과하려면 최소 5년 이상 소요되는 공사 기간을 단축해야 하는 점은 해결 과제다. 복합쇼핑몰이 2028년 개장을 예고한 상황에서, 지하철은 빨라도 2030년께나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 큰 고민은 지하철을 개통하더라도, 현 도로 구조상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광주시는 더현대 광주와 광주신세계 일대를 15분 내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중심 도로 체계 구축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 폭을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이고, 인도를 넓혀 차량 이용자의 접근 자체를 불편하게 해 차량 유입량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광천동 일대도 고민이지만, 스타필드 광주가 들어설 예정인 어등산 관광단지 역시 개장과 함께 심각한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스타필드 광주 방문객이 이용하게 될 인근 광주-무안 고속도로와 하남진곡산단로 등은 현재도 출·퇴근 시간과 금요일 등에는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지는 구간이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복합 쇼핑몰 성공의 최대 과제는 교통대책과 소상공인 대책 마련으로 압축할 수 있다"며 "이미 관련 TF를 구성하고 (도시철도, BRT, 도심급행버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는 2028년까지 광주 도심을 관통하는 혼잡도로인 광천사거리 주변으로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가 들어서는 데다 신세계백화점의 확장·신축 등이 겹치면서 교통 대란이 불가피한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윤 대통령, 다음 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1년9개월만에 회견 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취임 2주년을 맞아 공식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지난 30일 알려졌다.

이도훈 홍보수석은 전날 채널A에 출연해 "(기자회견을)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며 기자회견 개최 방침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실은 홍보수석실을 중심으로 시점과 방

식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조만간 열어 회견 준비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취임 2주년을 맞는 이달 10일이 금요일인 만큼, 당일보다는 그 전후한 시점이 유력하다. 늦어 지더라도 5월 중순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기자회견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길 약식 문답(도어스테

핑)을 진행하던 가운데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공식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이 기자회견이 열린다면 취임 후 2번째로, 약 1년 9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새해에는 조선일보 단독 인터뷰로 국정 운영 구상을 공개했으며 올해는 2월 7일 녹화 방송된 KBS 신년 대담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단 소속 언론사가 90곳에 육박하고 외신 관심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자회견 장소로 1층 브리핑룸 대신 더 넓은 공간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월 10만원 씩 3년간 저축하면 720만원 받는다

저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올해 신규 가입자 4만4000명(잠정)을 1월~21일 모집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이들이 계좌를 만들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원금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3년 뒤 총 1440만원(본인 납입 360만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선정된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연합뉴스

오월정신 헌법에 - 왜곡 악순환 끊어야 ▶6면

KIA 나성범 '팀 승리에 공헌하고 싶다' ▶18면

해남 슬라시도 '산이정원' ▶22면

사랑과 감사의 70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진화, 그 이상의 새로움

The new E-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4-5001 & 광주 인종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일방울대로 565(도천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 220 d 4M EX · 배기량:1999, 공차중량:1975, 자동9단, 복합연비:15.4(도심연비:13.6, 고속도로연비:18.4), 등급:2, 복합CO2 배출량:122  
· E 300 4M EX · 배기량:1999, 공차중량:1900, 자동9단, 복합연비:11.4(도심연비:9.9, 고속도로연비:14.6),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7  
· E 300 4M AMG line · 배기량:1999, 공차중량:1900, 자동9단, 복합연비:11.4(도심연비:9.9, 고속도로연비:14.6),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7  
· E 450 4M EX · 배기량:2999, 공차중량:1970, 자동9단, 복합연비:10.5(도심연비:8.9, 고속도로연비:13.4), 등급:4, 복합CO2 배출량:165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본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